



Brief

발행일 2012. 9. 10 발행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고경화

보건산업브리프 Vol. 39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2012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신 유 원

I 배경 ...

2012년 상반기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된 시점으로 주요 제약사들의 경영 성과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매출액 및 총자산이 증가하여 시장 컨센선스를 상회하는 외형적인 성장세가 나타났음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수익성지표인 매출원가 상승(10.6%증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1%, 29.3% 감소하여 수익성 악화가 초래됨

2012년 하반기 예측 자료에 따르면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나, 3분기 이후로는 점진적인 경영실적 회복을 전망함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기업별 매출원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각 기업에 적합한 사업모델 적용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 개선에는 기업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제약산업 허가 제조업체수는 587개(식약청, 2011년 기준)로 나타남. 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70개 상장기업의 2012년 상반기 HHI¹⁾는 338.2로 시장 집중도가 매우 낮은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짐
 - 제약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은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 등 규모가 작아 중소 제조업체가 난무하여 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이루어짐
- 2012년 상반기 제약산업의 주요 이슈인 정부의 약가인하정책(12.4)이 시행되었고, 금년 상반기 제약기업 경영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제약기업의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지표 등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하고자 함
-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및 산업체 경영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속적인 경영실적(분기, 반기, 연간 등)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동향자료 제공

II 자료 및 분석방법 ...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기업별 재무정보
 - ※ 각 재무정보는 K-GAAP 개별 기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별 사업보고서

1) 허핀달-허쉬만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구조가 경쟁 또는 독점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HHI라고 함.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기업 간 경쟁이 심하다고 판단함. 통상적으로 HHI 1,000 미만은 집중도가 거의 없는 시장, 1,000~1,800은 경쟁적 시장, 1,800~4,000은 과점적 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 시장으로 구분

◎ 분석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2월 결산월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사 70개 기업(이후 '상장 제약기업'으로 칭함)을 대상으로 함
- ※ 「동물용의약품(C21230)」 및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C21300)」 분석 제외

<참고>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구 분		기 업 명
유가증권 (36개)	대기업 (30개)	동아제약(주), (주)유한양행, (주)대웅제약, (주)녹십자, 한미약품(주), (주)종근당, 제일약품(주), JW중외제약(주), (주)LG생명과학, 일동제약(주), 광동제약(주), (주)한독약품, 보령제약(주), 동화약품(주), 신풍제약(주), 삼진제약(주), (주)태평양제약, (주)서흥캡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국제약품공업(주), 대원제약(주), 영진약품공업(주), 이연제약(주), 종근당바이오(주), 환인제약(주), 명문제약(주), 일성신약(주), 한올바이오파마(주), 근화제약(주), 슈넬생명과학(주)
	중소기업 (6개)	삼일제약(주), 동성제약(주), 삼성제약공업(주), (주)알앤엘바이오, 우리들제약(주), 파미셀(주)
코스닥 (34개)	대기업 (13개)	(주)셀트리온, 동국제약(주), 코오롱생명과학(주),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안국약품(주), (주)휴온스, 경동제약(주), 삼천당제약(주), JW중외신약(주), 삼아제약(주), 대화제약(주), (주)셀트리온제약, 메디포스트(주)
	중소기업 (21개)	대한약품공업(주), 파일약품(주), (주)바이오랜드, (주)하이텍팜, (주)바이넥스, 대정화금(주), (주)에스텍파마, KPX라이프사이언스(주), 고려제약(주), (주)서울제약, 신일제약(주), 대봉엘에스(주), 조아제약(주), 경남제약(주), 진양제약(주), (주)코리아본뱅크, (주)메디톡스, (주)중앙백신연구소, (주)바이오니아, (주)스카이뉴팜,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2012년 상반기 제약기업의 성장성 · 활동성 · 수익성 · 안정성지표 분석
 - 시장구분 및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분석

<표 1>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지표	세부지표	지표	세부지표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등	활동성지표	· 총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등
수익성지표	· 매출원가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등	안정성지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이자보상비율 등

주: 세부지표의 해설 및 산출식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해설(2007.12)을 이용



Ⅲ 국내 제약기업의 2012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

1. 성장성 분석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5.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하며 시장이 성장하였으나, 상반기 기준으로 성장세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
 -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매출 시장점유율 (MS)은 49.0%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함
 - 시장구분별로 코스닥사의 매출액증가율이 10.1%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2.6%, 중소기업이 2.1%로 비슷한 매출 성장을 나타냄
 - 주요 기업별로 (주)메디톡스(164억원, 70.2% 증가), (주)셀트리온(1,600억원, 24.4% 증가), (주)유한양행(3,679억원, 9.8% 증가) 등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슈빌생명과학(주) (131억원, △45.7%), JW중외제약(주)(1,986억원, △8.2%), (주)대웅제약(3,456억원, △1.4%) 등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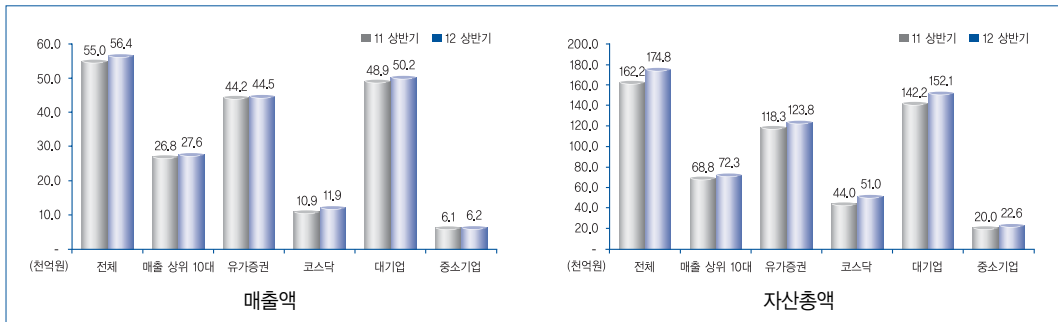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총자산은 17.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코스닥사의 총자산이 5.1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 증가하며 유가증권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 2012년 상반기 제약기업 성장성지표

(단위: 십억원, %)

구분	매출액			자산총계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	5,441 (14.1)	5,500 (1.1)	5,641 (2.6)	14,432 (20.4)	16,224 (12.4)	17,477 (7.7)	
매출 상위 10대 기업	2,814 (14.2)	2,683 (△4.6)	2,763 (3.0)	6,505 (15.0)	6,878 (5.7)	7,232 (5.1)	
시장 구분	유가증권	4,503 (13.6)	4,415 (△2.0)	4,446 (0.7)	10,781 (15.6)	11,826 (9.7)	12,380 (4.7)
	코스닥	939 (16.2)	1,085 (15.6)	1,194 (10.1)	3,651 (37.5)	4,399 (20.5)	5,096 (15.9)
기업 규모	대기업	4,877 (14.1)	4,894 (0.4)	5,022 (2.6)	12,679 (20.1)	14,223 (12.2)	15,213 (7.0)
	중소기업	565 (13.8)	605 (7.2)	618 (2.1)	1,753 (22.8)	2,001 (14.2)	2,263 (13.1)

주: () 괄호 안의 값은 매출액증가율



[그림 1] 제약기업 성장성지표 추이

2. 활동성 분석²⁾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총자산회전율³⁾은 0.33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총자산회전율 1.06(한국은행, 2011년 연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제약기업은 제조업의 약 30% 수준에 그침

 - 제약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위주의 제약기업은 매출액이 크지 않아 총자산회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의 과대투자 또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장구분별은 유가증권, 기업규모별은 대기업의 총자산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별로 총자산회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주)대웅제약(0.71), 보령제약(주)(0.59), 제일약품(주)(0.57) 등의 순이며, 낮은 기업은 파미셀(주)(0.06), 일성신약(주)(0.08), (주)알앤엘바이오(0.09) 등의 순임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⁴⁾은 2.95로 나타남.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 10.99(한국은행, 2011년 연간 기준)와 비교했을 때 제약기업은 낮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기업별로 재고자산회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메디포스트(주)(37.41), (주)메디톡스(10.86), (주)하이텍팜(8.35) 등의 순이며, 낮은 기업은 (주)에스텍파마(1.46), (주)바이오니아(1.64) 등임

〈표 3〉 2012년 상반기 제약기업 활동성지표

(단위: 배)

구분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	0.41	0.36	0.33	2.92	3.09	2.95
매출 상위 10대 기업	0.46	0.40	0.39	2.94	3.27	3.02
시장 구분	유가증권	0.45	0.39	0.37	2.99	3.23
	코스닥	0.30	0.27	0.25	2.66	2.58
기업 규모	대기업	0.42	0.36	0.34	2.98	3.19
	중소기업	0.36	0.32	0.29	2.52	2.44

2) 활동성분석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 또는 투하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 산출시 저장 (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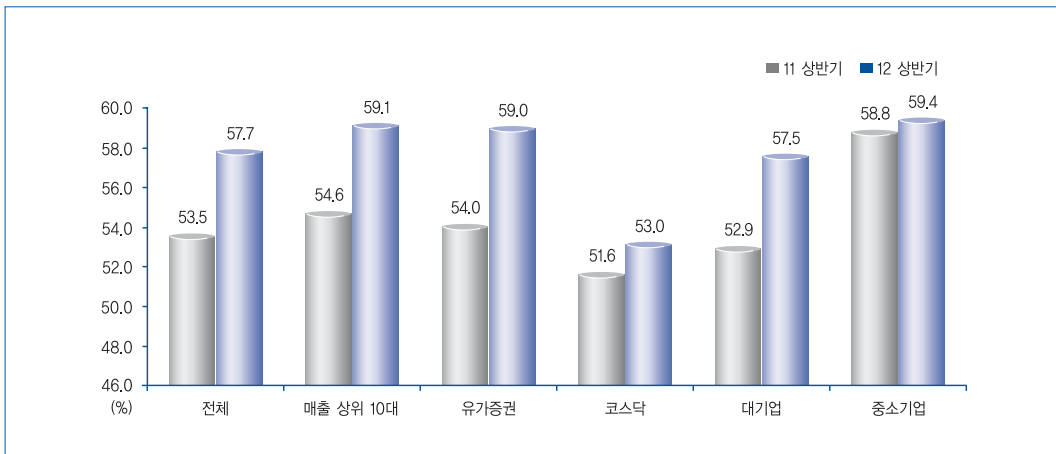
3)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 Turnover)은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의 운용 효율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4)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ies Turnover)은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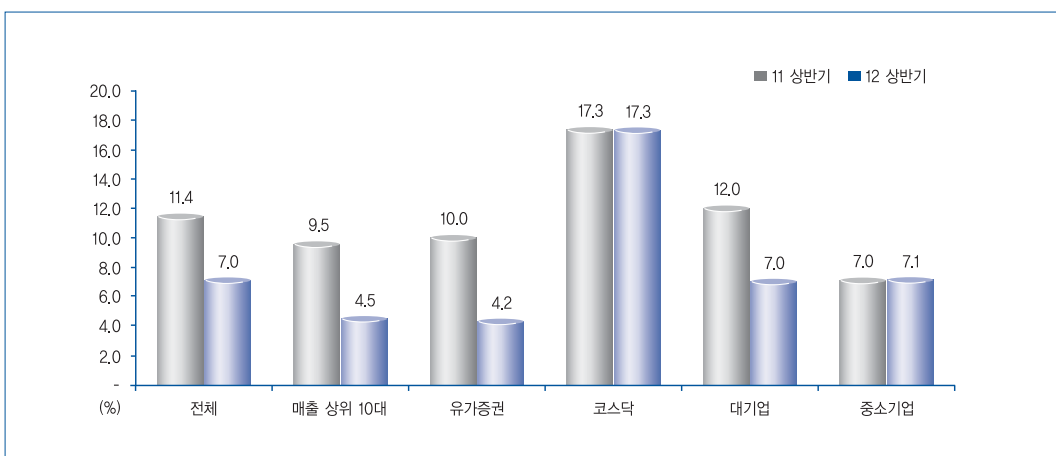
3. 수익성 분석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원가는 3.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상승, 매출 원가율은 57.7%로 전년 동기대비 4.2%p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약가인하에 대비한 판매제품 재고조정 반품으로 인한 차액 지급, 원료의약품 원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됨
 - 70개 상장 제약기업 중 파미셀(주), 코오롱생명과학(주) 등 19개 기업의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51개 기업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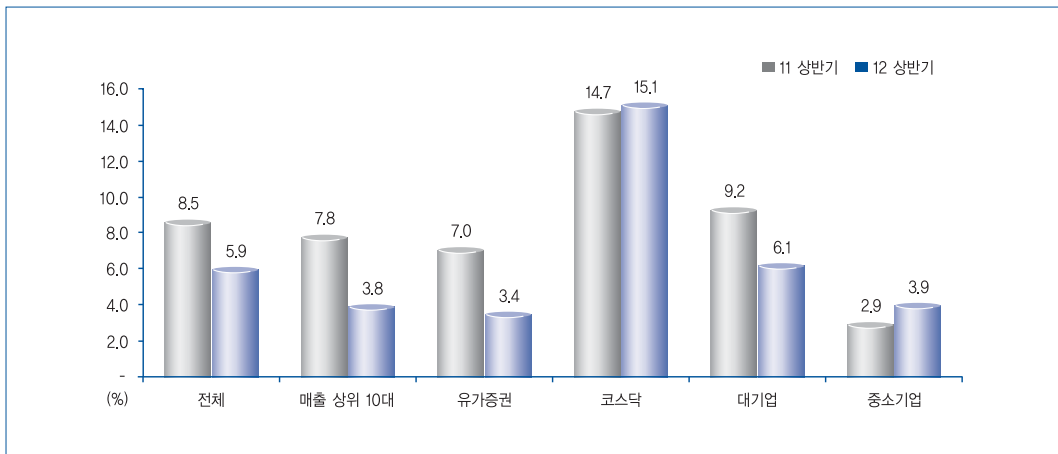
[그림 2]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원가율 추이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은 3,95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1% 감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0%로 전년 동기대비 4.4%p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됨
 - 코스닥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의 수준을 유지하며 감소하지 않았으나, 유가 증권사는 5.8%p 감소(10.0%→4.2%), 대기업은 5.0%p 감소(12.0%→7.0%)
 -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기업은 (주)메디톡스 57.5%(24.7% 증가), 삼아제약(주) 20.1%(10.1% 증가), 코오롱생명과학(주) 19.3%(10.1% 증가) 등이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적자를 나타낸 기업도 15개에 달함



[그림 3] 제약기업 구분별 영업이익률 추이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31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3% 감소, 매출액순이익률은 5.9%로 전년 동기대비 2.7%p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됨
 - 앞서 살펴본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⁵⁾의 증가가 당기순이익 감소를 초래함. 특히 지난 4월 일괄 약가 인하의 영향으로 의약품의 가격하락이 제약기업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 매출 상위 10위 기업의 순이익률은 3.8%로 전년 동기대비 3.9%p 감소하였고, 유가증권社와 대기업의 순이익률은 감소한 반면 코스닥社와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각각 15.1%, 3.9%로 전년 동기대비 0.4%p, 1.0%p씩 증가함
 - 기업별로는 일성신약(주)의 매출액순이익률은 61.4%(41.5%p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주)메디톡스는 47.8%로 전년 동기대비 14.2%p 순이익률이 증가함.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파미셀(주) 등 13개 기업으로 나타남



[그림 4]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4. 안정성 분석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부채비율⁶⁾은 59.3%로 전년 동기대비 2.6% 상승하였으나 그 비율이 100% 이하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구분별 부채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64.4%), 유가증권社(63.6%), 코스닥社(49.8%), 대기업 (58.3%), 중소기업(66.4%) 등 모두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함
 - ※ 제조업 부채비율(2011년 연간 기준): 84.9%(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5) 상장 제약기업 매출액 대 판매비와관리비: ('09.상) 37.6% → ('10.상) 35.6% → ('11.상) 35.0% → ('12.상) 35.3%

6)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함. 자기자본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짐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유동비율⁷⁾은 183.5%로 전년동기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구분별 유동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185.6%), 유가증권社(178.7%), 코스닥社(197.4%), 대기업 (187.7%), 중소기업(162.5%) 등 그 비율이 높아 재무유동성이 크게 나타남
 - ※ 제조업 유동비율(2011년 연간 기준): 120.4%(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표 4〉 제약기업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추이

(단위: %)

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	57.1	56.7	59.3	207.8	195.2	183.5	
매출 상위 10대 기업	62.9	59.9	64.4	201.8	206.9	185.6	
시장 구분	유가증권	61.7	61.3	63.6	194.3	192.8	178.7
	코스닥	44.9	45.5	49.8	270.4	202.8	197.4
기업 규모	대기업	56.4	55.2	58.3	207.7	195.9	187.7
	중소기업	62.0	68.5	66.4	208.4	190.7	162.5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이자보상비율⁸⁾은 454.7%로 전년 동기대비 383.4%p 감소 하였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 하였음
 - 구분별 이자보상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308.3%), 유가증권社(276.9%), 코스닥社(1,092.0%), 대기업(487.5%), 중소기업(295.9%) 등 유일하게 코스닥社만이 제조업 이자보상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 제조업 이자보상비율(2011년 연간 기준): 675.4%(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표 5〉 제약기업의 이자보상비율 추이

(단위: %)

구분	'10년 상반기	'11년 상반기	'12년 상반기	YoY(%p)	
상장 제약기업	926.0	838.1	454.7	△383.4	
매출 상위 10대 기업	995.2	673.0	308.3	△364.7	
시장 구분	유가증권	900.5	711.1	276.9	△434.2
	코스닥	1,036.2	1,443.9	1,092.0	△351.9
기업 규모	대기업	1,054.2	965.6	487.5	△478.2
	중소기업	331.5	296.9	295.9	△1.0

7)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임

8)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 부담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IV 요약 및 시사점 ...

- ◎ 2012년 상반기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된 시점으로 주요 제약사들의 경영성과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매출액 및 총자산이 증가하여 시장 컨센선스를 상회하는 외형적인 성장세가 나타났음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0.33)과 재고자산회전율(2.95)은 각각 제조업 대비(한국은행, 2011년 연간 기준) 약 30% 수준에 그쳐 자산 투자 및 재고자산 관리가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수익성지표인 매출원가 상승(10.6%증가),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1%, 29.3% 감소하여 수익성 악화가 초래됨
 - 상반기 중 약가인하에 대비한 유통재고 조절, 판매제품 반품에 대한 약가 차액 지급,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괄 약가 등으로 인하여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됨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59.3%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 역시 183.5%로 재무유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자보상비율은 454.7%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향후 수익성이 나아지면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주요 증권사의 2012년 하반기 예측 자료에 따르면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나, 3분기 이후로는 점진적인 경영실적 회복을 전망함
 -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기업별 매출원가 경쟁력 강화방안 및 각 기업에 적합한 사업모델 적용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 개선에는 기업별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 본 연구는 최신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의성있는 상장 제약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으나, 분석기간(반기)의 데이터수집 제약으로 외감기업 분석에서 제외한 점, 단기적 효과 분석이 어려워 혁신형제약기업의 성과 분석을 제외한 점 등은 한계점으로 들 수 있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 집필자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신유원

◎ 문의 : Tel. 043-713-8419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